

제 목: 2014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월 CBSI 0.2p 하락한 64.3 기록

- 계절적 요인 영향 1개월만에 CBSI 다시 하락 -

- 2014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2p 하락한 64.3을 기록함.
- CBSI는 작년 12월 전월비 3.6p 상승한 64.5를 기록해 소폭 회복되었으나, 2014년 1월에는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1월 CBSI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CBSI는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60선 중반에 머물렀으며,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4년 1월 CBSI 하락 폭이 0.2p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서는 작았는데1), 이는 작년 12월 CBSI가 64.5로 이미 예년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2), 작년 연말 국회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일부 입법화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4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6.3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6.3p 상승한 것은 건설기업들이 2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통상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경제 침체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CBSI 실적치가 70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전월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는데, 작년 6월 78.6을 기록한 이후 7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4.5p 하락한 43.4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악화되었으며,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와 달리 전월비 17.9p 상승한 67.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이는 작년 12월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0.7p 하락하며 50.0을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동 효과와 더불어 주택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에게 작년 연말 부동산대책 입법화가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5.6, 93.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4, 80.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3.5, 72.4를 기록해 건설기업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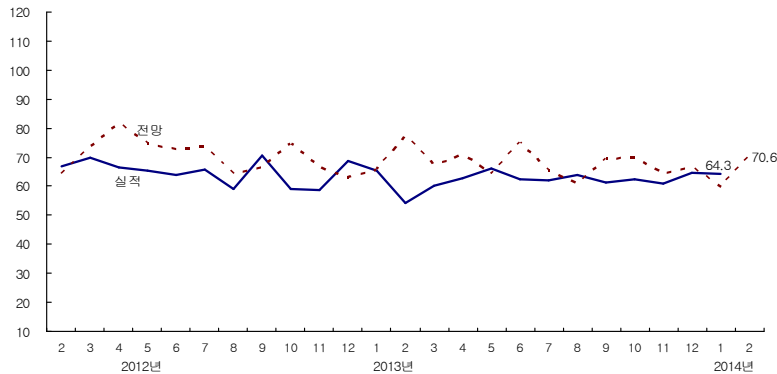
1) 2012년 1월 CBSI는 전월비 9.3p 하락했고, 2013년 1월 CBSI는 전월비 전월비 3.5p 하락했음.
2) 2011년 12월 CBSI는 71.6을 기록했고, 2012년 12월 CBSI는 68.9를 기록했음.

2014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0.2p 하락한 64.3 기록
계절적 요인 영향 1개월만에 CBSI 다시 하락

- 2014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2p 하락한 64.3을 기록함.
- CBSI는 작년 12월 전월비 3.6p 상승한 64.5를 기록해 소폭 회복되었으나, 2014년 1월에는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 물량도 줄어드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1월 CBSI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CBSI는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60선 중반에 머물렀으며,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다만, 2014년 1월 CBSI 하락 폭이 0.2p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서는 작았는데³⁾, 이는 작년 12월 CBSI가 64.5로 이미 예년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⁴⁾, 작년 연말 국회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일부 입법화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는 하락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전월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는데, 작년 6월 78.6을 기록한 이후 7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4.5p 하락한 43.4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악화되었으며,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와 달리 전월비 17.9p 상승한 67.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이는 작년 12월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0.7p 하락하며 50.0을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더불어 주택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에게 작년 연말 부동산대책 입법화가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0.3	62.8	66.1	62.4	62.1	64.0	61.2	62.3	60.9	64.5	64.3	59.8	70.6
규모별	대형	69.2	71.4	78.6	78.6	85.7	92.9	85.7	84.6	85.7	92.9	78.6	85.7	78.6
	중견	66.7	66.7	66.7	64.3	50.0	48.1	50.0	51.9	60.7	50.0	67.9	50.0	77.8
	중소	42.6	48.1	50.9	41.2	48.1	48.1	45.3	48.1	32.0	47.9	43.4	40.4	52.9
지역별	서울	64.8	66.9	68.6	71.6	68.7	70.9	73.1	71.2	74.2	73.2	71.6	67.7	76.2
	지방	53.6	58.7	62.2	52.6	51.9	53.3	39.3	49.0	41.1	51.6	52.8	47.4	61.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2012년 1월 CBSI는 전월비 9.3p 하락했고, 2013년 1월 CBSI는 전월비 전월비 3.5p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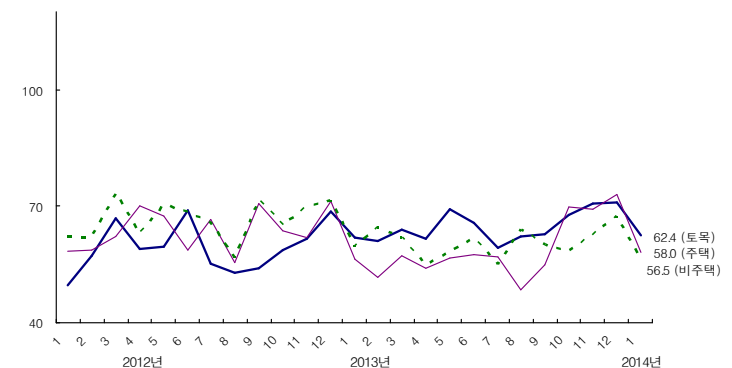
4) 2011년 12월 CBSI는 71.6을 기록했고, 2012년 12월 CBSI는 68.9를 기록했음.

- 한편, 2014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6.3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6.3p 상승한 것은 건설기업들이 2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통상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 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경제 침체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CBSI 실적치가 70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지난 2013년 12월 대비 1.6p 감소한 71.6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악화된 반면, 지방 업체는 전월대비 1.2p 상승한 52.8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비 1.6p 감소한 71.6을 기록, 지수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70선에 머물렀음.
 - 지방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1.2p 상승한 52.8을 기록함. 지수 상승폭이 1p 수준에 불과하고 50선에 불과해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1월 지수로는 지난 2010년 1월 61.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점, 2013년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4년 2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월보다 4.6p 상승한 76.2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9.0p 상승한 61.8로 전망해, 서울보다는 지방의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

2014년 1월 공사 물량지수 지난 2013년 12월 대비
10.1p 감소한 62.6 기록

- 2014년 1월 공사 물량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보다 10.1p 감소한 62.6을 기록함.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2013년 50~6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10월 73.6을 기록하였으며, 12월에도 72.7을 기록하는 등 연말에 70선을 소폭 회복하였음.
 - 그러나, 올해 1월 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보다 10.1p 감소한 62.6을 기록해 지수가 다시 60선으로 하락함.
 - 통상 연말 밀어내기 공사 물량의 영향으로 12월에 물량 지수가 상승한 이후 다음해 1월에 10~15p 정도 다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올해 1월에도 지난 2013년 12월보다 10.1p 하락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올해 1월 지수 수준이 최근 5년간 1월 지수로는 두 번째로 낮은 62.6에 불과해 물량 상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모든 공종에서 하락하였으며, 특히 주택과 비주택 물량의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비 8.4p 하락한 62.4를 기록, 공종별로는 유일하게 60선을 넘어 물량 침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비 15.1p 하락해 공종별로 등락폭이 가장 컸으며, 지수 또한 58.0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10.9p 하락한 56.5를 기록, 주택물량 지수와 마찬가지로 50선에 머물렀음.
- 업체 규모별로 중견 업체 물량지수가 지난 2013년 12월 대비 1.4p 증가했으나, 대형과 중소 업체 지수가 각각 21.4p, 9.8p 감소해 전체 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보다 21.4p 하락한 78.6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물량 지수가 지난 12월보다 28.6p나 감소한 71.4로 가장 부진했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78.6, 토목이 85.7을 각각 기록함.
 - 중견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보다 1.4p 상승한 60.7을 기록함. 1월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11월과 동일한 59.3을 기록,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회복이 없었으며 50선으로 낮아진 데 따른 반등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이 작년 12월보다 감소했는데, 비주택이 50.0으로 가장 부진했으며, 토목과 주택이 각각 51.9, 57.1로 모두 50선을 기록함.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지난 2013년 12월 보다 9.8p 하락한 46.2를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이 38.0을, 토목과 주택이 50.0, 58.1을 각각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 2013년 12월보다 9.9p 하락한 72.6을, 지방도 10.2p 하락한 47.2를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9.9p 하락한 72.6을 기록, 한달 만에 다시 70선으로 하락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2p 하락한 47.2를 기록, 지난 2013년 9월 40.9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50선 아래로 하락함.
- 2014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보다 9.4p상승한 68.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혹한기를 지나면서 통상 1월보다 2월에 물량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월 지수가 68.6으로 여전히 60선에 불과해 물량 침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물량지수가 65.8로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다음으로 비주택 물량지수가 6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건축 공종은 지수가 회복되는데 반해 토목 물량지수는 2월에 61.4로 1월 지수 62.4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결국, 토목 물량 상황이 2월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2.6	78.6	60.7	46.2	72.6	47.2
	전망	68.6	78.6	70.4	54.9	75.0	58.7
토목	실적	62.4	85.7	51.9	47.2	70.9	49.5
	전망	61.4	78.6	53.8	50.0	66.6	53.2
주택	실적	58.0	71.4	57.1	43.2	62.4	50.7
	전망	65.8	78.6	59.3	58.1	68.6	60.7
비주택	실적	56.5	78.6	50.0	38.0	65.6	42.3
	전망	63.9	78.6	59.3	52.1	69.4	55.6

주 : 실적은 2014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2월 예측지수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매우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5.6, 93.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4, 80.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3.5, 72.4를 기록해 건설기업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3.5	100.0	78.6	69.8	84.0	82.8
		전망	84.7	100.0	81.5	70.6	86.3	81.8
	자금조달	실적	72.4	85.7	64.3	66.0	74.6	69.0
		전망	74.6	85.7	66.7	70.6	76.7	70.9
인력	수급	실적	95.6	107.1	96.3	81.1	104.0	82.6
		전망	94.8	100.0	103.7	78.4	101.9	83.4
	인건비	실적	88.4	100.0	92.9	69.8	95.0	78.2
		전망	91.1	100.0	100.0	70.6	98.1	80.2
자재	수급	실적	93.1	100.0	96.4	81.1	99.9	82.6
		전망	94.7	100.0	100.0	82.4	101.9	83.3
	비용	실적	80.4	92.9	78.6	67.9	81.8	78.2
		전망	79.1	92.9	74.1	68.6	82.4	74.0

주 : 실적은 2014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2월 예측지수임.